

“육자진언 염송법은 티베트-몽골-한국 잇는 신앙벨트”

한·몽 국제학술대회 현장

“육자진언 염송법은 티베트-몽골-한반도를 하나의 신앙벨트로 연결시키고 있다.” 한국과 몽골의 밀교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양국 불교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몽골 울란바토르 간단사에서 열렸다. 진각종 회당학회(회장 효운)와 몽골불교미술대학(학장 푸래바트)은 7월 23일 몽골 간단사에서 ‘한-몽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회당학회는 2002년, 세계밀교의식시연대회 등을 통해 몽골불교계와 조금씩 교류해왔지만 밀교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인적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각종 회당학회와 몽골불교미술대학이 몽골 울란바토르 간단사에서 개최한 불교문화 학술대회.

한·몽 밀교연구 본격 교류 첫 행사

간단사 스님들의 밀교의식으로 시작된 이날 국제학술회의에는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종회의장 성초 정사, 회당학회장 효운 정사 등 진각종 스승 및 종도 40여명과 몽골 불교대학장 소남 라마를 비롯한 간단사 스님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회당학회장 효운 정사는 “불교의 교섭은 한·몽 양국의 정신적 세계와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동아시아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밀교사상의 유원이 남아있는 양국이 상호교류를 통해 전통을 복원하는 한편,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제시할 때”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회정 총무원장은 축사를 통해 “육자진언 ‘울마니반메홀’을 설하고 있는 <마니칸 붓>이 티베트에서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전해졌다”며 “양국 불교문화의 상호교류를 상거하면서 중생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불국토 건설의 동반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에 간단사 총무원장 최갑초 라마는 뽀바스님(간단사 승가대학 교육부장)이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화시대에 한국과 몽골불교는 전통과 불교문화를 보호하고 전파하며 젊은이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며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밀교의 사명을 다하자”고 화답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측에서 회당학회 명예회장 혜정 정사, 진각대학원 허일범·김경집 교수가 각각 ‘한국불교와 육자진언’ ‘한-몽사원의 장엄에 관한 연구’ ‘고려시대 한-몽불교의 교섭’ 논문을 각각 발표했다. 몽골 측에서는 푸래바트 몽골불교미술대

‘한-몽 불교문화’ 주제…밀교연구 위한 첫 인적교류 진각종 회정 정사·몽골 불교대학장 등 100여명 참석

학장이 ‘몽골불화 수택조각의 특징과 제작이론’을, 몽골불교대학장 소남 라마가 ‘몽골 불교사’를, 후렐바타르 몽골학술과대학원 교수가 ‘칭기스칸과 몽골불교’를 각각 발표했다.

고려의 사경문화·교학 원나라에 전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울마니반메홀’ 육자진언 등 진언 수행을 중심으로 한 밀교(密敎)가 원나라-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한 양국 불교문화교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발제에 나선 허일범 진각대학원 교수는 “13세기에는 티베트불교가 몽골에 전파되고, 그것은 다시 몽골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며 “1294년에는 몽골로부터 티베트 승려 절사팔(折思八)이 티베트 경전과 법구류를 가지고 고려에 들어왔고, 1314년에는 홍약(洪嶽)이 티베트경전 1만8000권을 고려에 전해준 일이 있다”고 소개했다. 허 교수는 “육자진언의 염송법은 티베트-몽골-한반도를 하나의 신앙벨트로 연결시키고 있다”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 남아 있는 육자진언 관련 유적들이 말해주고 있

다”고 밝혔다.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는 한몽간의 불교교류 과정에서 고려의 뛰어난 사경문화와 교학이 원나라에 전수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원나라는 고려의 뛰어난 사경문화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많은 사경승을 요구하여 그들의 사경문화를 성숙시켰다. 그리고 고려의 금강산 장안사와 유점사 등 유명한 사찰에 전래되는 신앙(금강산이 1만2000보살이 상주하는 법기도량이란 사상을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칭기스칸은 불교 중흥·외호한 법왕”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몽골측에서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칭기스칸이 인도의 아스카왕에 비견되는 불교의 중흥·외호자인 전륜성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몽골 측 발표자들은 칭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몽골에 불교가 확고히 자리잡았고, 공산화가 되기 이전까지 찬란한 라마불교문화의 꽃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후렐바타르 몽골학술과대학원 교수는 “칭기스칸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지 영토

를 확대하고 정복하고, 살육하는데 치우친 전쟁으로 상대국 멸망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 아니었다”며 “그가 인도의 경전에서 교훈을 얻고 티베트 고승과 현자들을 국사로 숭앙했던 것은 아주 뿌리 깊은 전통이라는 ‘황금 고삐(중요한 고리)’를 후세에 전해준 법왕(法王)이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후렐바타르 교수는 “몽골불교 사학자들은 칭기스칸을 옛날 인도의 아쇼카 왕과 티베트의 스론장 감보 왕 등 법왕들의 행적과 연관시켜 말한다”며 “칭기스칸 시기에 몽골에 불교의 뿌리가 내렸고 불교 중흥의 기원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푸래바트 라마는 “고대의 문서들은 고대 몽골이 기원전 3세기에 이미 번성했던 불교문화를 누렸다는 기록들을 드러낸다”면서 “세계를 정복했던 대몽골의 영웅들은 불교의 수행에 그들의 모든 힘을 쏟아서 심오한 내면의 세계를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교를 받아들인 후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갈수록 더 많은 몽골의 위대한 전사들이 무기를 던지고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닌 각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적들과 전투했다”며 “몽골의 승려들이 벌였던 전쟁은 칭기스칸이 성취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우주적 전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랜 역사의 몽골불교는 1937년 완전히 괴멸되었고, 1990년대 초기부터 4번째의 부흥기가 시작되었다”면서, 한국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몽골 울란바토르=김성우 기자

몽골불교 총본산 간단사는 어떤 곳?



종교 억압 이겨낸 유일한 사원

다양한 종교행사 개최 관광객·불자들로 붐벼

17세기에 설립된 간단(Gandan)사는 라마불교 사원으로 정식명칭은 ‘간등테그친트렌 히드’이며 ‘완전한 즐거움을 주는 위대한 사원’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1930년 공산정권의 종교 억압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사원으로 유명하며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라마불교의 대표 중심사원이기도 하다.

간단사 내에는 중심건물인 관음전 내부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26m짜리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으며, 몇 개의 작은 절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승가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사원내에는 약 150여명의 라마승들이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데, 학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님들은 간단사 부근의 작은 절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간단사는 울란바토르의 중심사원인만큼 연중내내 다양한 종교행사가 열려 볼거리가 많아 항상 외국인 등 관광객과 불자들로 붐빈다. 사원내에 들어서면 티베트불교의 영향으로 마니차, 오체투지, 승복 등 모든 것이 티베트의 어느 사원에 와 있는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라싸의 조강사원과 비슷한 치욕적인 법난의 과거와 몽골불교의 종본산인 점이 티베트불교와 몽골 불교의 공통점을 엿보게 한다.

김성우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주)경인메트로닉스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침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동국대의 5배)

국립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특차)

조기유학생 모집
초 6·중·고 1, 2, 3학년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 여권용 사진 10매
박 사 과 정	3년	2명	
남경재경대 학	4년	20명	· 경제학, 법학, 공학, 외국어, 예술디자인과 등

2. 학교 소개

- 세계 질주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9,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8년 8월 20일**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삼화불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7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호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성고)	▲이원영(동지고)	▲김민환(인화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교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중(북경중의대 한의학과)

원 광 대 한의대학 대 전 대 한의대학 (분교) 삼화불교 대학 립

한국 총장 손혜인